

# “복지시대의 침병, 봉사의 현장을 찾아”

## 이동검진사업 통한 고혈압, 당뇨, 암 등 성인병 예방 및 관리업무 체계적 수행 노령화 대비 노인요양사업 적극 강화 건강검진 등 예방의학 분야 중점 전개

전체인구의 25%가 노인인구이며 장수마을로 알려진 전남 곡성군.

박명도 보건의료원장은 『100세 세대를 맞는 오늘의 현실에서 성인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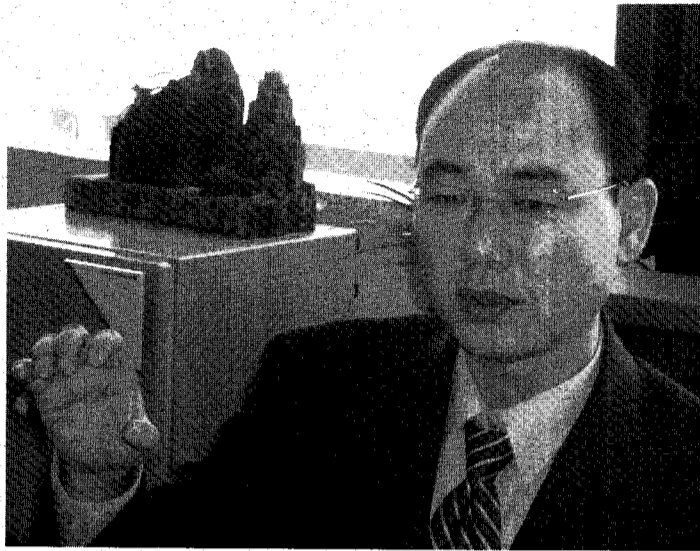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곧 바로 공직에 뛰어든 박 원장은 자신의 표현처럼 『돈 벌 재주가 없어서』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의 업무라는 것이 그러한 겸손함 뒤에 배어있는 스스로의 인생관과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아니라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우리 군의 성인병 관리 사업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 하나씩 차분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직원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곡성군의 보건의료사업은 그 효과 면에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곡성지방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모범적인 장수의 고장인 점을 감안해 이동검진사업을 통한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질병 예방 및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고, 이러한 모든 업무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소와 의료원의 기능을 합친 「보건의료원」의 특성상 지역병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출장건강검진,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주간보호사업(재가복지사업, 요양, 말반찬공급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심진강이 흐르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디스토마 관리 사업, 노인층은 물론 청소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한 금연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박 원장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한방지역보건사업과 관련 『기존의 보건사업과 체계 또는 내용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단순히 한의학적인 수단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실제 양·한방이 융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1989년에 개원, 10여년간 지역의 2차 진료기관으로써 24시간 응급실체계 구축, 전문의사의 확보로 중추적인 지역의료기관의 역



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하여 보건지소나 진료소 일반 병·의원을 합쳐 25개나 되고, 의사 1인당 인구수도 800명에 달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원장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앞으로 지역 특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충,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사업의 강화, 건강검진 등 예방의학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보건정책도 『▲저 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절감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대에서의 일화가 계기가 되어 평소 率先垂範과 易地思之, 그리고 信賞必罰의 정신을 자기 자신과 조직관리의 규범으로 삼고있다는 박 원장은 최근의 공무원 파업과 관련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강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일선의 보건疫료를 담당하고 있다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한다. 조용히 산길을 걷거나 맛깔스러운 시골의 정취를 얘기하는 박 원장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수행하는 숨은 일꾼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산과 들판에 둘러 싸여 있는 여여한 멋이나 유현한 향기, 심진강을 끼고 도는 허허한 분위기, 이 모두가 어우러져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곡성군이다. 박 원장을 비롯 김신월 계장 등 이날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그들의 일상이 그 만큼 삶의 자연적 시각 위에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박 원장은 1989년 전남의대를 졸업한 후 1994년 장성군 보건의료원 진료부장, 1996년 구례군 보건의료원장을 거쳐 2004년 5월부터 곡성군 보건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황보승남 국장>



## 곡성군 고혈압관리 사례가 대표적 “국민건강검진과 연계해 고혈압환자 조기 발견”

우리나라 보건疫료 관리사업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이 곡성군 보건疫료원의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공 보건疫료기관의 역할과 인식 전환 및 친화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곡성군 보건疫료원은 국민건강검진 사업과 연계한 고혈압환자 발견 및 관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관내 267개리 단위마을 및 사업장, 학교, 기관 등을 방문하여 이동검진을 실시해 고혈압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병의 진행 및 악화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관리와 연계한 식생활 개선,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을 증대하고 관련 만성질환 발병 및 사망률을 저하시켜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즉, 만 4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사업이 고혈압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의료원측은 이동검진반을 편성, 농한기를 이용한 집중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1차검진 후 2차검진 대상에게는 개인별로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2차 검진 후 정상으로 진단된 사람은 대중교육이나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토록 하고 있다. 반면 2차 검진 후 고혈압환자로 진단된 사람은 고혈압환자 관리 기준에 의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인 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 위험도분류가 중위인 경우는 등록 관리하고, 저위는 홍보물과 교육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곡성군보건疫료원의 고혈압환자 관리의 특징 중 하나는 추적 관리 할 때 뇌졸중 및 고혈압 환자 및 고위험군과 정기적으로 투약 및 관리를 받지 않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관리하며 약물복용 등의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보건교육과 건강정보제공을 제공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 1대 1의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혈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곡성군보건疫료원측은 『보건疫료기관의 장비, 인력 등 검진 수준 한계로 민간기관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검진 받은자에 대한 정보공유 협조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금연 클리닉 운영 (www.nosmoker.or.kr)

곡성군 보건疫료원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건疫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금연클리닉 사이트에 등록하는 희망자는 ▲소년네 니코틴 검사 ▲호기중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금연칩, 니코틴패취) 무료 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인터넷 사용이 많은 젊은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 상담 및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인터넷상에서는 ▲개별 상담 프로그램 운영 ▲금연단계별 홍보 메일 발송 ▲금연 매니저 도입 ▲금연 게시판과 토론방 운영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흡연의 폐해 알기, 흡연권고 거절하기 훈련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금연교실」도 운영하는 등 금연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2001년 61.8%)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9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때에 곡성군보건疫료원의 「금연클리닉」 개설·운영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용균 부장>